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2017 한국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회계투명성과 금융경쟁력

201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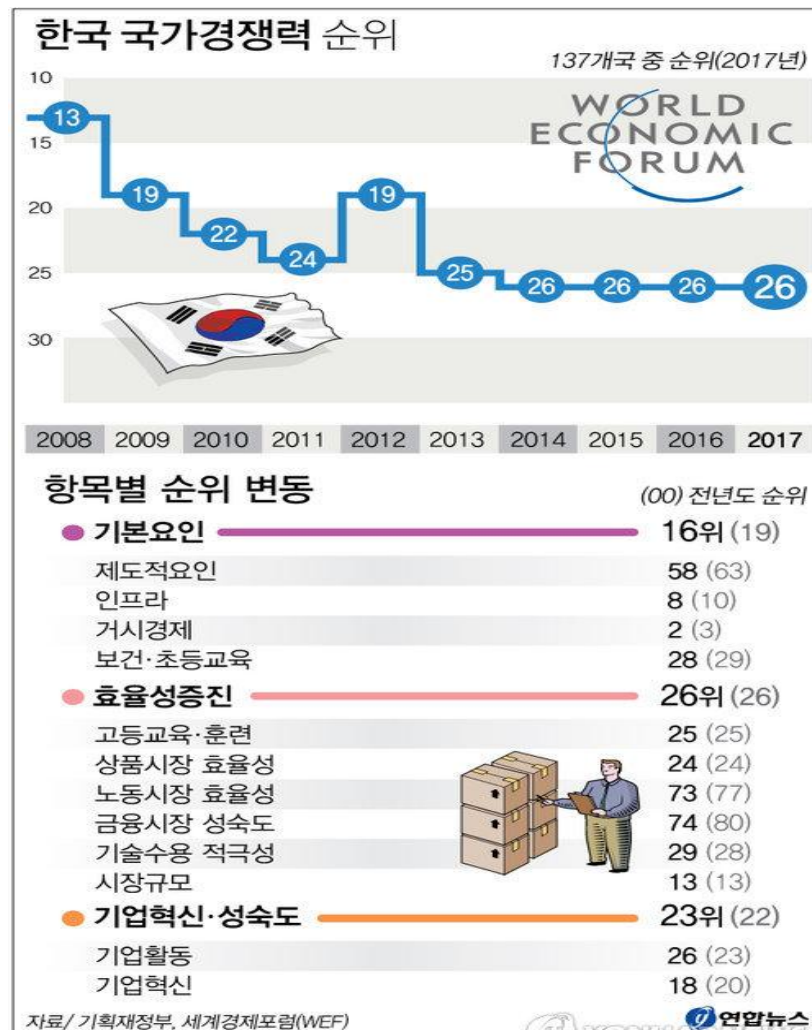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 중 경

Contents

1. 금융이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는다
2. 불투명성이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는다
3. 회계정보는 어떻게 이용되나?
4.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는가
5.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고
금융도 바로 선다
6. 회계정보는 공공재
7.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금융과 회계정보

1. 금융이 국가경쟁력을 값아먹는다 ①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1. 금융이 국가경쟁력을 값아먹는다 ②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사설]노동·금융이 국가경쟁력 발목잡는다는 WEF의 경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4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쟁력이 정체된 것은 노동과 금융 부문의 낙후성 때문이다. 노동시장 효율성과 금융시장 성숙도는 각각 73위와 74위로 **경쟁력을 값아먹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서울경제)

‘정체된 韓 경쟁력’ 4년째 26위 ... “선진국선 드물게 순위 하락세”
노동시장 효율·**금융시장 성숙부문이 ‘발목’** (연합뉴스)

네팔보다 못한 한국 금융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이 네팔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 2017~2018’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금융분야 순위는 137개국 가운데 74위로 집계됐다. 금융분야 종합 점수는 7점 중 3.9점이었는데, 이는 모로코와 네팔, 라오스, 레바논, 이집트, 아르메니아 등과 같은 수준이다. 순위로 따지면 네팔(73위)과 라오스(75위) 사이다. (헤럴드경제)

[사설] 노동·금융 고질병 고쳐야 국가경쟁력 회복

세계경제포럼(WEF)이 27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속의 한국은 그야말로 연구대상이다. 한국은 **‘최상의 하드웨어를 최악의 소프트웨어로 돌리는 나라’**이고 ‘극단적 장점과 최악의 고질병을 동시에 가진 나라’이며 ‘최강 IT 환경을 가진 금융 후진국’이다. 세상에 이런 야누스에 아수라 국가가 없다...(헤럴드경제)

1. 금융이 국가경쟁력을 낮아먹는다 ③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금융시장 성숙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 80 → 74 (6↓)

※ 가장 크게 상승한 항목 :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76→64 위, 12↑)
가장 크게 하락한 항목 :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42→47위, 5↓)

항목	순위		항목	순위	
	'17	'16		'17	'16
금융서비스의 기업수요 대응성 (Financial services meeting business needs)	81	81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Venture capital availability)	64	76
금융서비스 가격적정성 (Affordability of financial service)	44	43	은행 건전성 (Soundness of banks)	91	102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Financing through local equity market)	47	42	증권거래관련 규제 (Regulation of securities exchanges)	71	71
대출의 용이성 (Ease of access to loans)	90	92	법적 권리 지수* (Legal rights index)	70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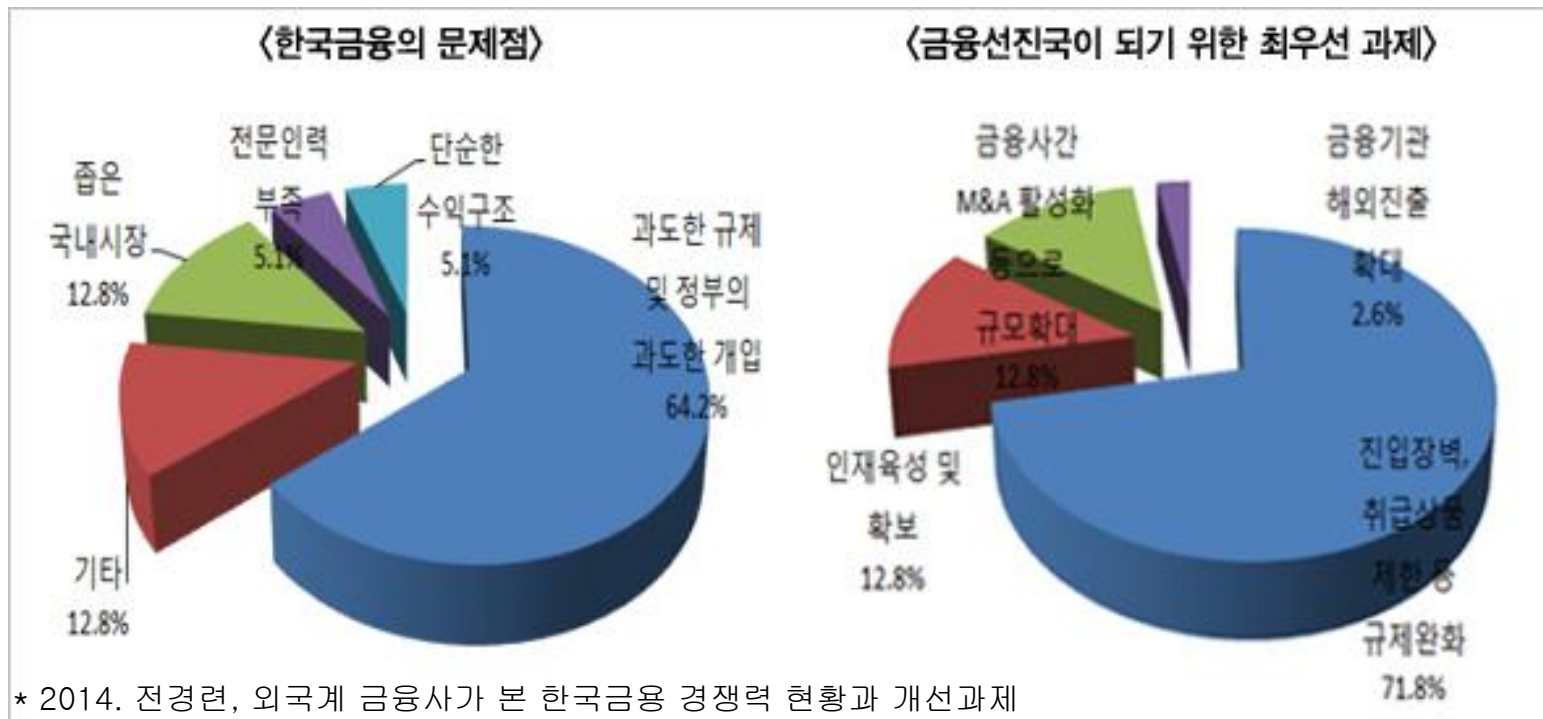
1. 금융이 국가경쟁력을 낮아먹는다 ④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부모가 어린아이 돌보듯 하는 가부장적 규제, 시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일일이 지도하고 간섭하여 시장의 활동범위 축소(상품설계 인가 등), 작은 오차때문에 규제체계를 복잡하게 운용하여 사회적 비용 증가

☞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금융산업

가부장적 규제체계를 자기책임의 원칙이 존중되는 규제체제로 전환해야



2. 불투명성이 국가경쟁력을 값아먹는다 ①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국가경쟁력 관련 투명성 및 신뢰성 지표 순위

구분	순위
비정상적 지급 및 뇌물	45위
정부 지출의 낭비 여부	53위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 강도	63위
공공자금의 전용	69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81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90위
기업경영윤리	90위
대출의 용이성	90위
정부규제의 부담	95위
정책결정의 투명성	98위
소액주주의 보호	99위
시장지배(독점)의 정도	101위
기업이사회의 유효성	109위
전체 순위	26위

※137개국 중 순위(2017년)

자료 : 세계경제포럼(WEF)
(*헤럴드경제)

공공부문의 경우,
정책결정의 투명성(98위),
정부규제 부담(95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90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81위) 등

👉 **후진국보다 낮은 투명성 순위**

민간부문의 경우,
기업 이사회 의 유효성(109위),
소액주주 이익보호(99위),
기업경영윤리(90위) 등

👉 **시장의 신뢰도가 최저 수준**

2. 불투명성이 국가경쟁력을 값아먹는다 ②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최근 5년간 한국 회계투명성 순위 (IMD)

괄호는 조사 대상 국가 수.



자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기획재정부

회계투명성과
국가 경제와의 연관성?

2001년 엔론사 회계부정
사건 발생 후 미국은
국가차원의 대책마련
(‘사베인스옥슬리법’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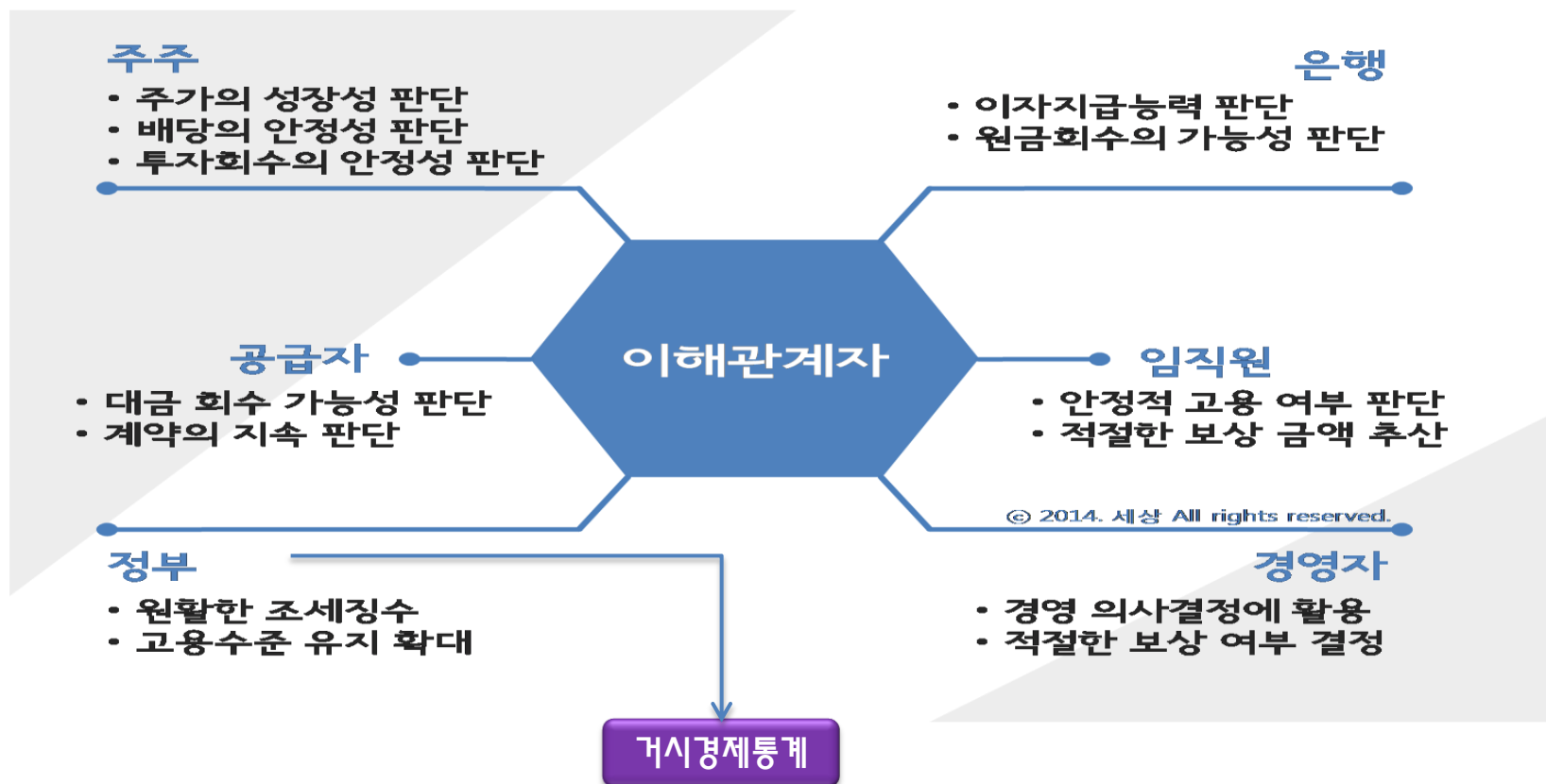
회계투명성 꼴찌 수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발생 후 우리나라는?

* 2개국 추가: 사우디아라비아(34위), 사이프러스(36위)

3. 회계정보는 어떻게 이용되나? ①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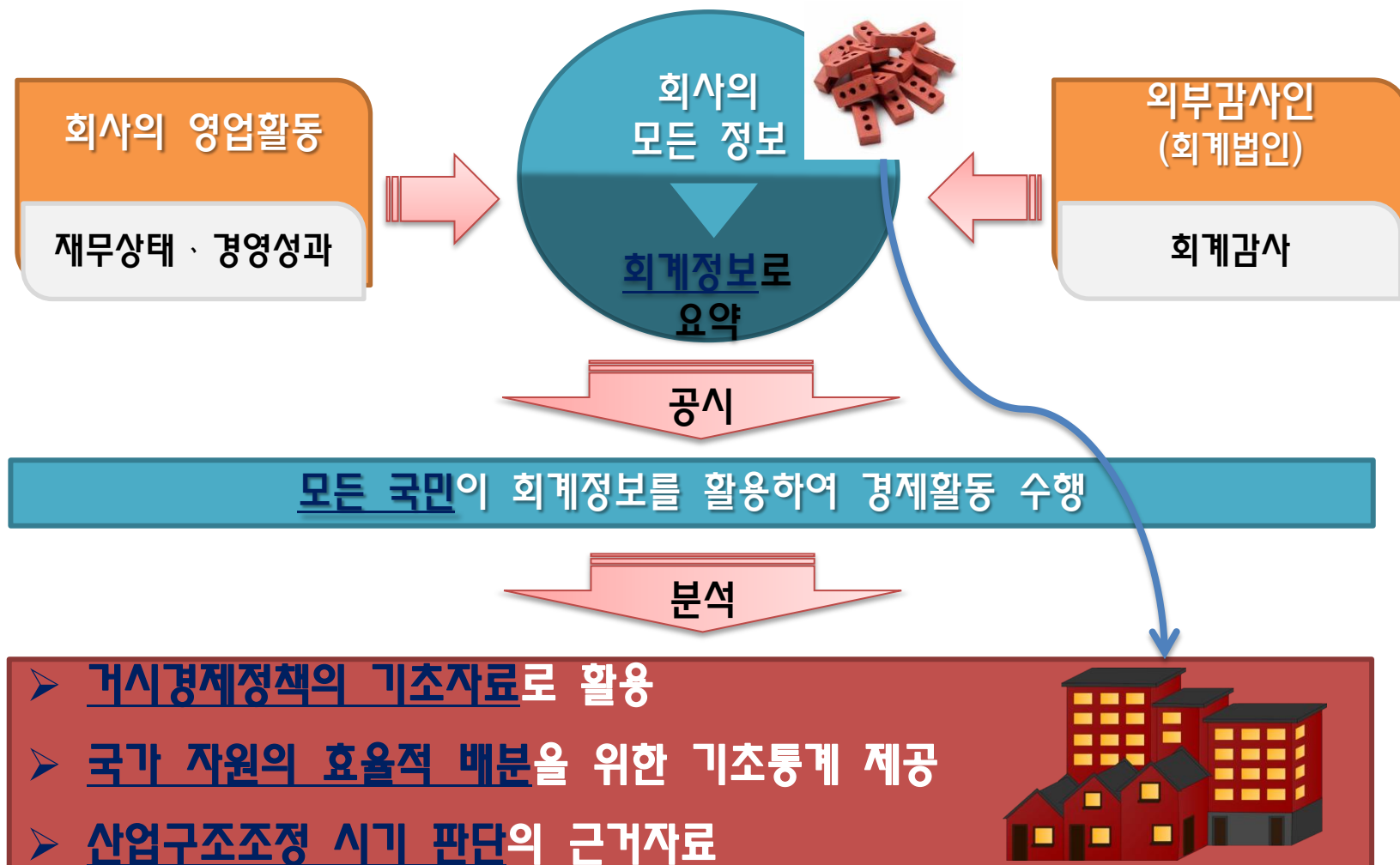
✓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하는 회계정보



3. 회계정보는 어떻게 이용되나? ②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 개별 기업의 회계수치가 모여서 GDP등 **거시경제통계의 기초자료** (벽돌과 집)



3. 회계정보는 어떻게 이용되나?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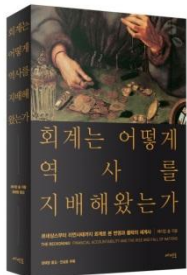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 복식부기의 기술뿐 아니라 정신(책임성)도 체화한 **네덜란드** 사례



네덜란드 황금시대

- 세계의 금융메카
- 세계 최초의 다국적기업이자 상장 회사 (**네덜란드연합동인도회사**) 및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설립
- 아시아,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 진출(지금의 뉴욕인 뉴암스테르담 지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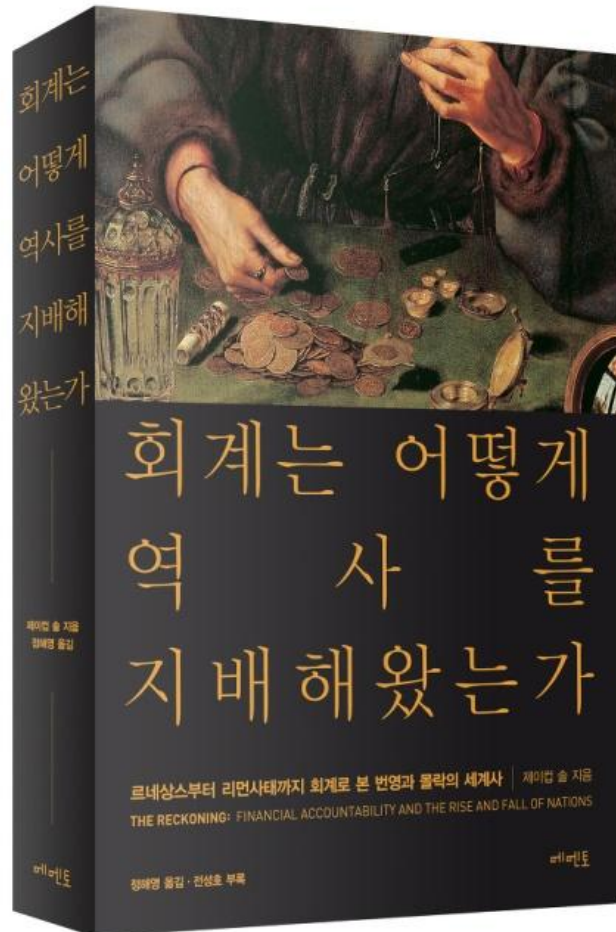
성공요인: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만든 **복식부기**

- 상인들의 강한 신용
- 독립된 사법기구와 엄격한 사유재산권 보호제도
- 회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 **광범위한 회계교육 실시**
- **정확한 회계 수치에 입각한 의사결정**
- 복식부기를 배워 정치행정에 이용한 최초의 군주 탄생

* 스페인: 남미에서 막대한 부 축적했으나 중위권국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회계교육 소홀 때문

4.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는가 ①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 ✓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는가
- 르네상스부터 리먼사태까지 회계로 본 번영과 몰락의 세계사



저자: Jacob Soll (역사학자, 회계학자)

- 회계투명성이 기업, 나아가서는 국가의 흥망과 밀접하게 연관

(사례)이탈리아 상인의 번영, 스페인 제국의 패망, 네덜란드 황금시대, 루이14세의 프랑스의 파산, 산업혁명, 미국건국, 대공황과 금융위기 등

(*) 우리나라: 회계불투명으로 인한 외환위기 발발 (1997년),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로 IMD 회계신인도 순위 최하위(2016-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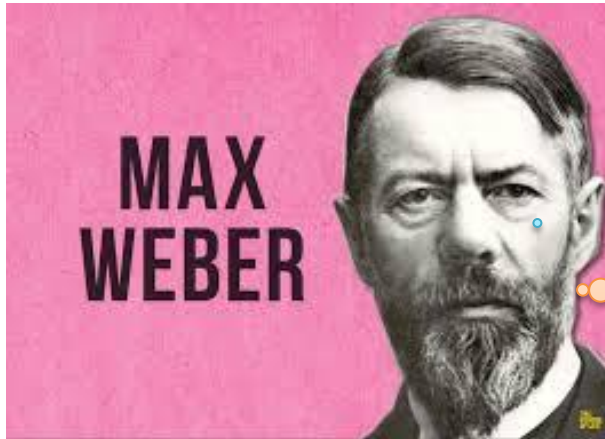
- 회계는 도덕적·문화적 체계의 일부

→ 회계교육을 도덕·예술·철학·정치에 관한 필수 교육과정과 이론에 통합시켜야 함

4.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왔는가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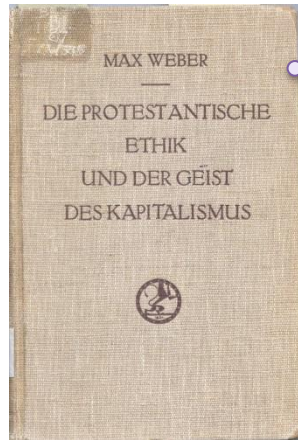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 회계는 자본주의 성장에 필수적인 문화 요소의 하나(막스 베버)



'합리성(rationality)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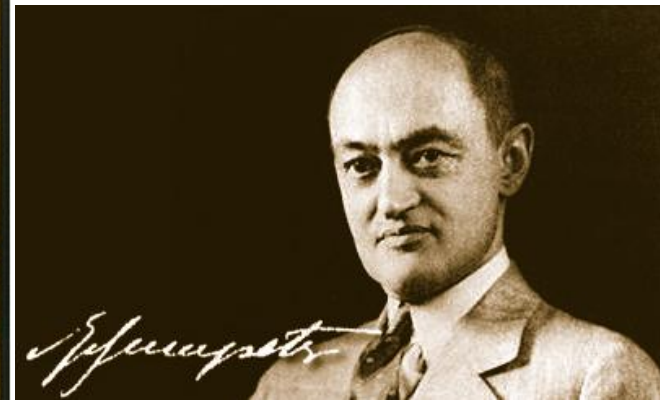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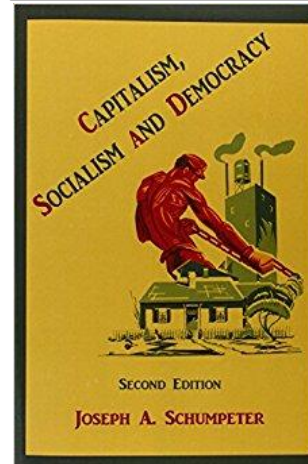
'근대 부기에 따른 계산과 대차대조표를 통해 수익성을 결정'하는 회계
→ 자본주의 합리성 향상과 자본주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회계는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의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905)

✓ 회계는 자본주의의 핵심 (조지프 쉘페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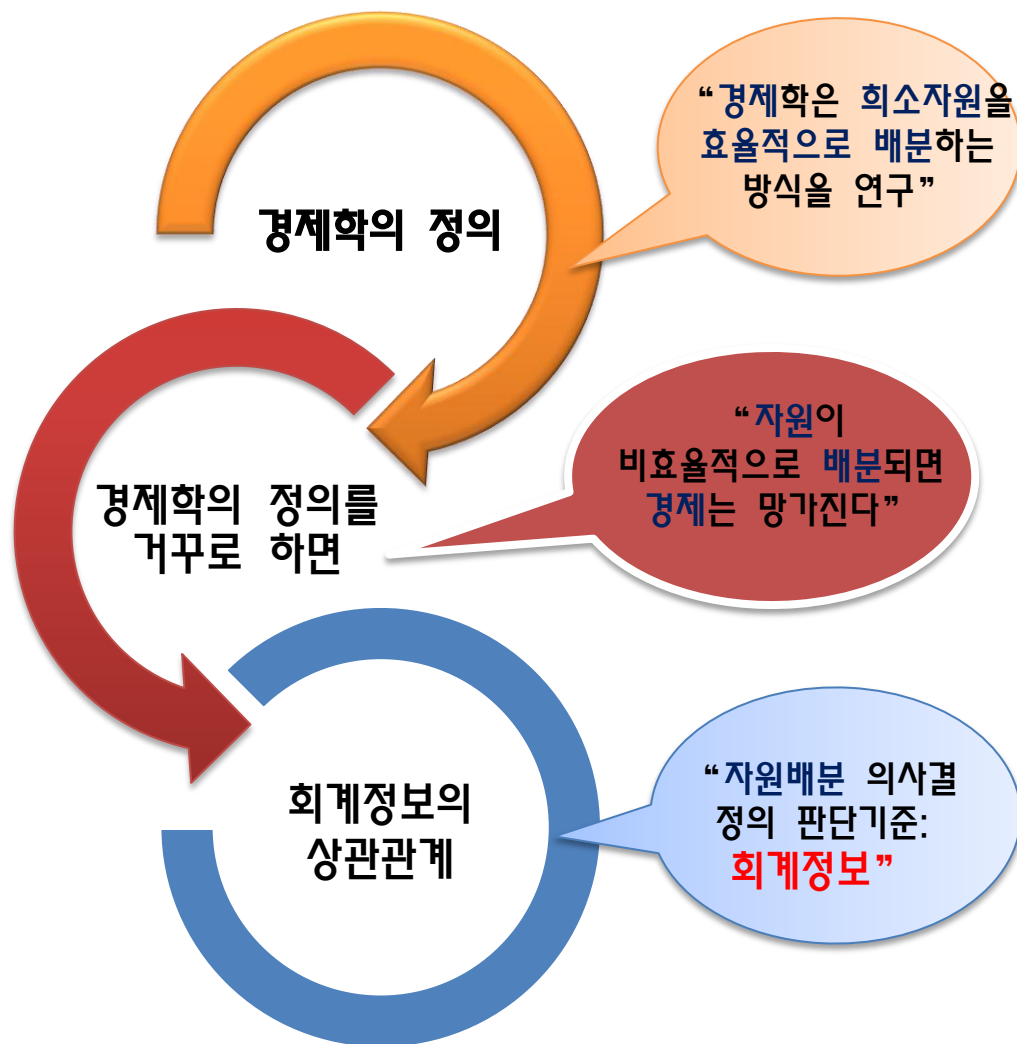


*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5.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고 금융도 바로 선다 ①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 경제학의 정의에서 출발한 **경제**와 **회계정보**의 상관관계



✓ **금융경쟁력** 강화와 **회계정보**

* 금융시장성숙도 항목 관련

금융서비스의 기업수요 대응성

* 회계정보에 기반한 금융서비스 다각화

금융서비스 가격적정성

* 회계정보에 기반한 금융서비스가격 산정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제공으로 자본시장조달비용 절감

대출의 용이성

* 회계정보에 기반한 대출심사 및 자금쏠림현상완화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 회계정보에 기반한 금융자원의 합리적 배분

은행건전성

*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에 근거하여 건전성 비율 산정

증권거래관련 규제

법적 권리 지수

5.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고 금융도 바로 선다 ②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 잘못된 회계정보로 인한 폐해
→ 구조조정 타이밍 놓쳐 국고탕진



⇒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손실,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등 그 파급효과가 크며, 우리나라의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음

대우조선해양 사태

- ✓ 부정확한 회계정보로 인해 상황을 오판하여 구조조정 시기를 놓침
 - ✓ 정확한 회계수치가 나와 영업손실이 있는 그대로 알려졌다면 정부가 일찌감치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손을 썼을 것
- ⇒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 초래
[대우조선해양 시가총액 : 2007년 17.5조 ⇒ 2016년 1.2조]

5.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고 금융도 바로 선다 ③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 잘못된 회계정보로 인한 폐해 → 유망잠재기업 지원기회 박탈, 스타트업 기업 성장 둔화

모뉴엘(MONEUAL) 사태

- ✓ 로봇청소기 등 제조하던 가전업체
- ✓ 2007년 CES(*)에서 Bill Gates 언급(거짓말)
- ✓ 2013년 CES에서 최고혁신상 수상
- ✓ 2014년 10월 법정관리 신청 (가공매출)
- ⇒ 3조원 이상 사기대출 & 금융회사 수천억 손실



증강현실(AR) -포켓몬고

- ✓ 한국콘텐츠진흥원:2009년 기술지원사업으로 모바일 AR개발 선정
- ✓ 2013년까지 4년간 120억 투자하여 기술 확보
- ✓ 기술은 관광지, 박물관 등에서만 일부 사용
- ✓ 스타트업 기업에 자원배분이 이루어졌다면
- ⇒ 한국에서 AR 게임이 먼저 출시 가능
- * AR기술 일본으로 가서 "포켓몬고"



- 수많은 신기술 벤처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중간도태
- 잘못된 회계정보 유통, 금융자원 배분 왜곡, 신기술 기업화 과정이 작동되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음

5.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고 금융도 바로 선다 ④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 통상마찰과 회계투명성 →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마찰과 조세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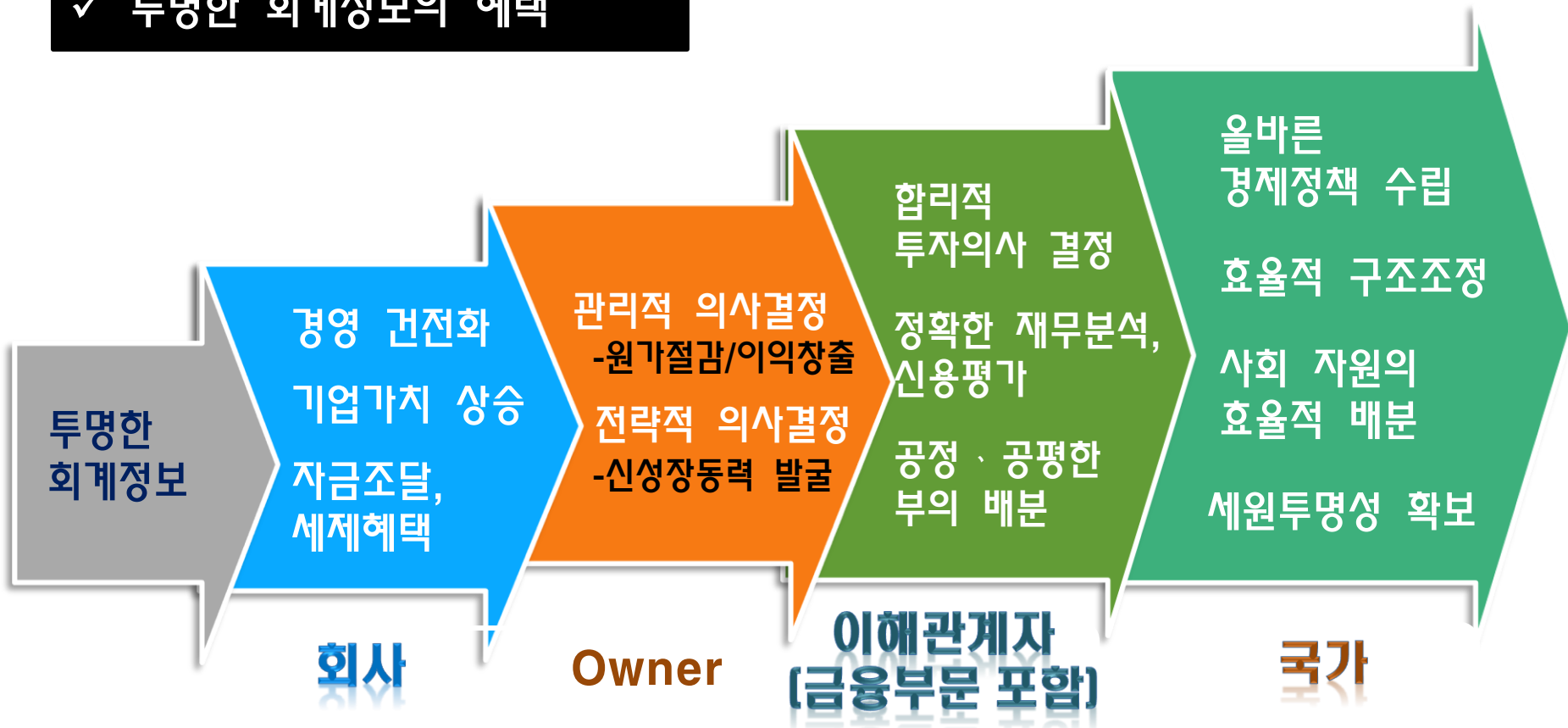
반덤핑·상계관세·Safe guard 등 통상마찰 증가	조세회피 방지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국제협정 준수 강화
✓ 장기간이 세계경제 침체로 무역경쟁 격화 ✓ 한미FTA 재협상, Safe guard 발효 ✓ 복잡한 조사 절차, 방대한 회계자료 필요성 (회사전반자료, 내수, 수출 및 원가 자료 등) * 수출판매가격이 정상판매가격임을 입증, 보조금이 특정기업이나 특정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입증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대두 ✓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문제해결 위해 세계 각국 BEPS 방지대책 제도화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및 조세분쟁증가 전망 ✓ 국외 자회사등 특수관계자와의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주요거래정보, 이전가격 결정 근거자료 등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원가계산자료의 제출, 방대한 회계자료의 분석 필요
→ 신뢰성없는 자료제출시 덤핑마진 과세, 수출시장 상실, 회사 존립 위태,
우리나라의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음

5.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고 금융도 바로 선다 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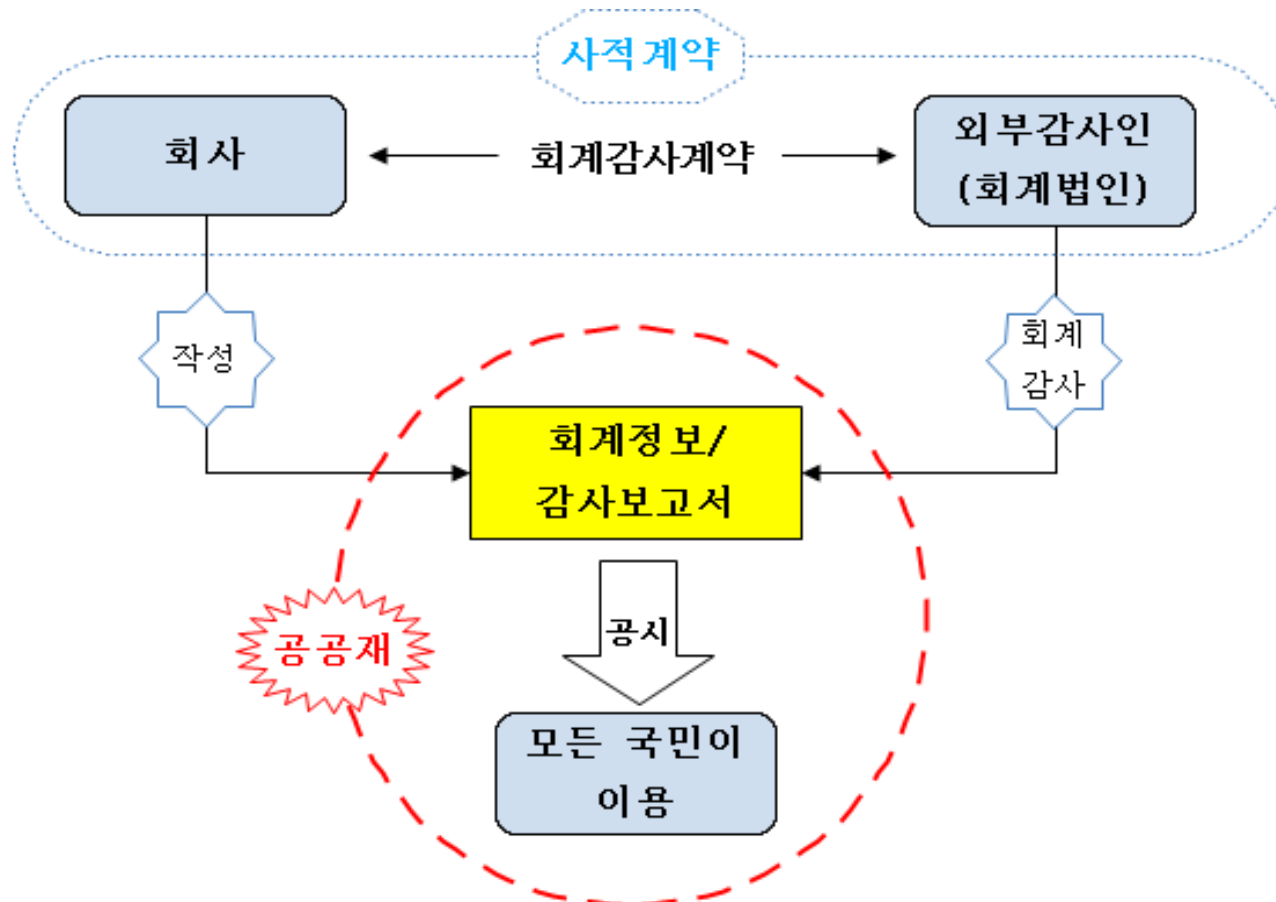
✓ 투명한 회계정보의 혜택



6. 회계정보는 공공재 ①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 회계정보 이용자는 모든 국민 → 회계정보는 **공공재**



6. 회계정보는 공공재 ②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회계감사는 회사가 작성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을 검증

✓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회계정보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재

✓ 회계감사는 회사와 회계법인 간의 사적계약으로 수행되지만

⇒ 회계정보 이용자는 모든 국민(투자자, 채권자, 정부, 일반 대중 등)

✓ 이용자는 회계정보를 활용하여 경제활동 (투자의사결정 등)을 하므로

⇒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회계정보는 공공재로서 최소한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국가 및 경제, 국민에게 도움

6. 회계정보는 공공재 ③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 잘못 베낀 자유수임제 ⇒ **내용이 다르다**

- 회계감사를 받는 자(CEO/CFO)가 회계법인을 선임
하고 감사보수를 결정 ⇒ **이해상충** 발생
-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는 선진국과 다르나* 선진국의 자유수임제를 그대로 도입
⇒ 회계정보의 실제 이용자는 **일반국민**이나,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 불가**

*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 소유와 경영 미분리, 감사위원회의 역할 미약



6. 회계정보는 공공재 ④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17.9.28)



'6+3' 지정감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부터 상장사에 적용

“우리나라의 낮은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

“회계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위한
제도개선”

6. 회계정보는 공공재 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 회계감사와
기업 Ow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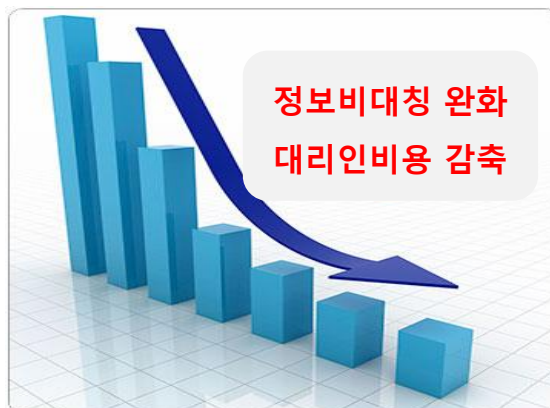
① 대리인비용
(Agency Cost)의 감축

② Management Letter를
통한 경영개선

Don't
FEAR
the
AUDIT



CPA:경제·산업전문가



7. 4차산업혁명시대의 금융과 회계정보 ①

– 4차산업혁명의 특징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 ”

- 다보스 포럼, 2016 -



제4차 산업혁명, 즉 제2차 정보혁명 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은 국가 산업의 흥망을 결정

4차 산업혁명 Key Words

Robots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ugmented reality

Cloud computing

3D printing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 Chain

Cyber Security

Autonomous car

7. 4차산업혁명시대의 금융과 회계정보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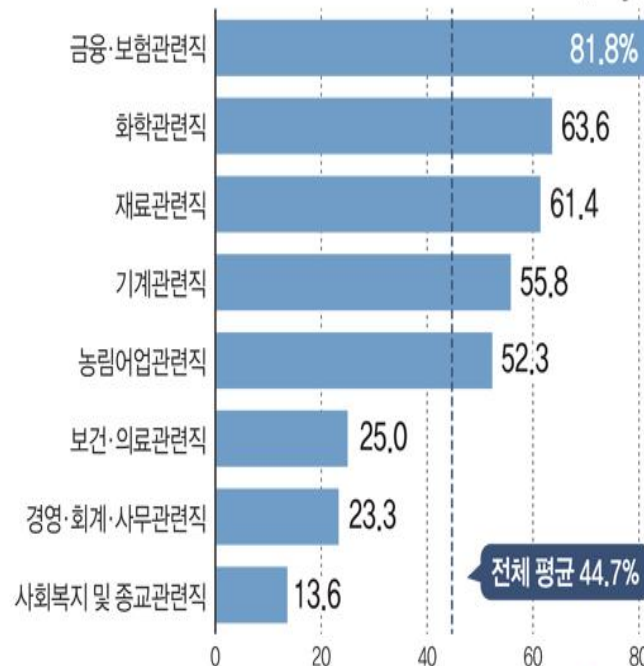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4차산업혁명으로 없어질 직업: 회계사? 금융인?

인공지능·첨단기술로 인한 직종별 일자리 감소 전망

23개 직종별 재직자 1천6명 설문조사 결과

'4차 산업혁명으로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 이라고 응답한 비율,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연암뉴스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과 확률

(단위: %)



99

텔레마케터



94

회계사



92

소매점 계산원



89

속기사



86

부동산 중개인



65

단순제조업
종사자



55

파일럿
(상업비행기)



43

이코노미스트



37

배우



17

소방관

자료: 이코노미스트지

미래에 요구되는 능력

- 실세계에서 정의되지 않은 복잡한 문제해결 능력 (36%)
- 다른 사람들과 협업, 설득, 교육하는 능력 (사회적 기술) (19%)
-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어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프로세스 기술)(18%)
- 시스템을 파악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찾는 능력(시스템 기술)(17%)

...

7. 4차산업혁명시대의 금융과 회계정보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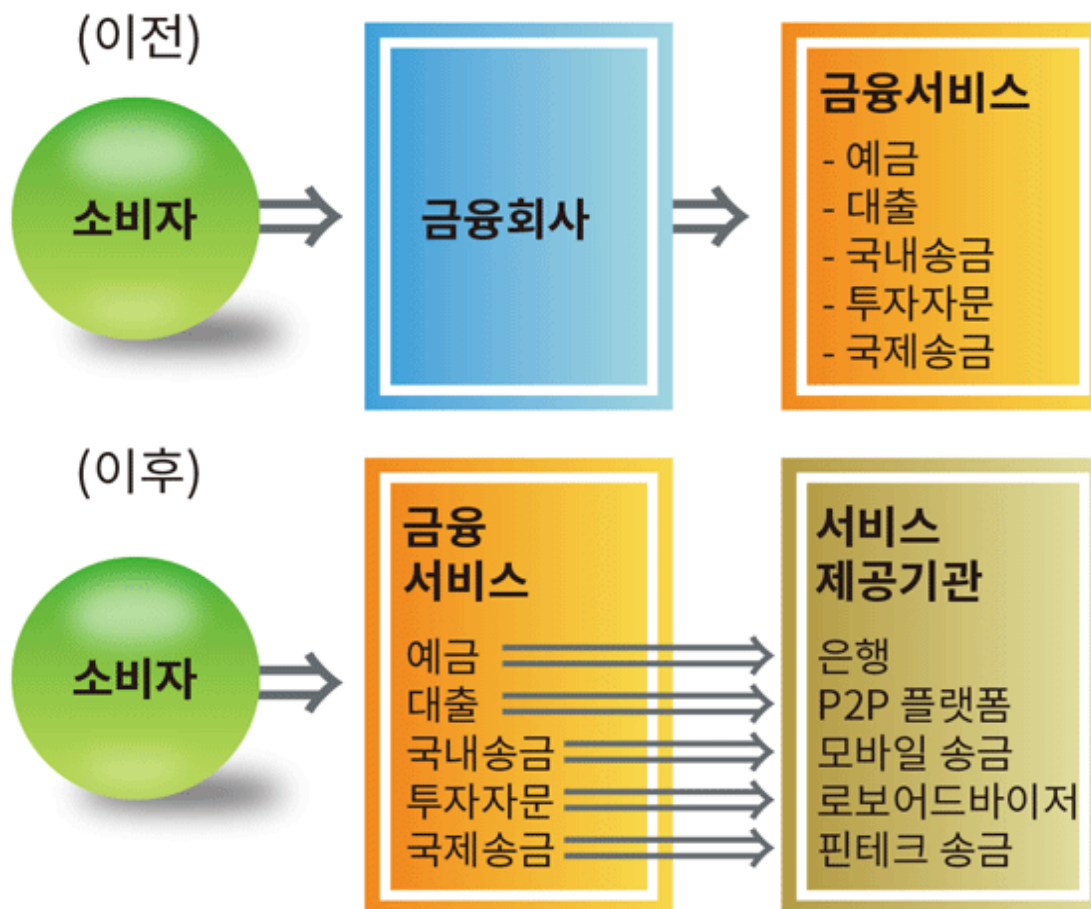
- 금융산업의 미래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금융소비자가 생각하는 금융의 미래

73%	금융회사보다 구글, 아마존 등 IT 기업이 제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더 큰 기대
50%	핀테크 스타트업이 기존 은행의 업무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 기대
33%	은행이 아예 필요 없어질 것이라 생각

금융업의 기능별 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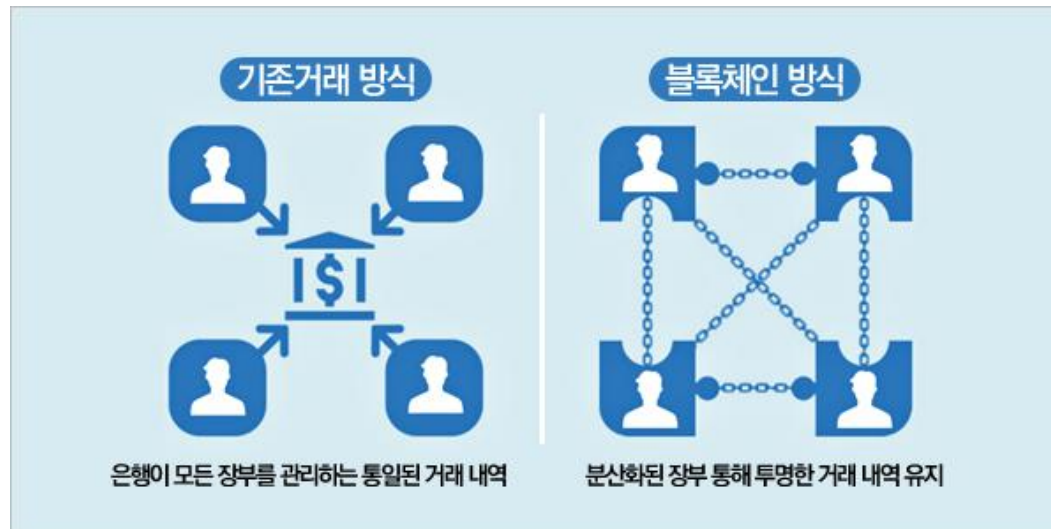
출처 : 한국은행

7. 4차산업혁명시대의 금융과 회계정보 ④

- 금융산업의 미래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AI



거래참여자 간 실시간 상호확인 가능
복제 및 해킹방지 등 보안 강화, 거래사기
예방비용 등 거래운영비용 절감

☞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신속하고 고도화된
'로보어드바이저' 또는
'로보애널리스트'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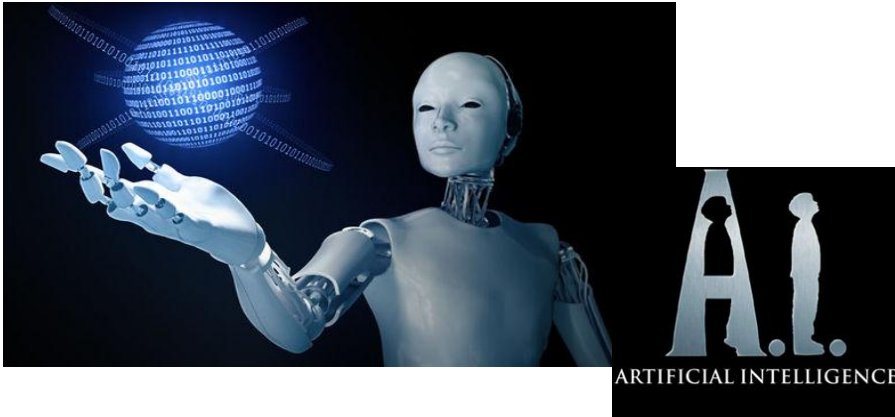
☞ **전문가 써포트 확대**

7. 4차산업혁명시대의 금융과 회계정보 ⑤

- 회계산업의 미래 : 인공지능과 회계정보 (AI & AI)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vian Influenza



Accounting Illiteracy



Accounting Information



7. 4차산업혁명시대의 금융과 회계정보 ⑥

– 회계산업의 미래 : 인공지능과 회계정보 (AI & AI) –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왓슨’ 한국어 공부 끝내고 6월 출격

<IBM 인공지능>

왓슨 기반 AI ‘에이브릴’
SK C&C 6월말께 상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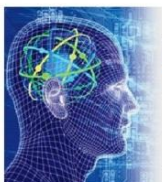
한국어 공부를 마친 IBM 인공지능(AI) 플랫폼 ‘왓슨’이 이르면 6월 30일 공식적으로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 SK C&C가 IBM 왓슨을 기반으로 만든 ‘에이브릴’이 한국어 버전으로 상용화되는 것이다.

▶ 관련기사 8면

이미 가전대 김병원과 롯데 등 국내 의료·유통 분야에 진출한 왓슨의 언어장벽이 사라진 만큼 앞으로 금융·법률·제조까지 적용범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미 AI에서 ‘누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텔레콤과 SK C&C 간 AI 서비스 협업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어 ‘왓슨’ 상용화…AI생태계 언어장벽 사라져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 C&C는 왓슨의 국내 사업권을 확보한 지 1년이 만인 6월 30일부터



구분	내용
도입 현황	45개 국가, 통신·유통·제조 등 20개 산업, 500여개 글로벌 기업 도입
적용 언어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 8개 자연어이며 한국어 출시(6월 예정)
주력 사업	왓슨 사업(사상임대), 왓슨 헬스(의료·보합임), 왓슨 IoT(사물인터넷)

자료 : 한국IBM

왓슨의 한국어 서비스 ‘에이브릴’ 상용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하고, 최근 국내 테크 스타트업(7개) 기반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어 왓슨 API(애플리케이션 개발도구) 기반 개발환경을 공개했다.

한국IBM 왓슨 그룹 관계자는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왓슨 베타버전(제4판)이 이미 나왔다”며 “오는 6월 30일 공식적으로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어 왓슨 출시일이 명확히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금융·의료·유통 분야 도입 전망—AI로봇 등장 기대

한국어 공부를 마친 왓슨은 의료·금융·법률 분야를 1차 공략 대상으로 정하고 본격 시장개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에서도 왓슨을 이용한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왓슨은 전 세계 45개 국가에서 500개 넘는 글로벌 기업이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미국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AT&T는 콜센터

에 왓슨을 집만족도 향상도 잡고 있다. 또 류류 유동업체이후 고객은 왓슨이 최대 40%출 상송요금을 특히 금융권히 보고 있는가포르 DBS도입된 왓슨은 상품 정보 등투자중점을 제인의 투자성향 지원한다. S에이브릴 상은 관심을 보법률을 담은 국내에서는전 견장대 등치료법 제시다. 또 롯데가추천 왓슨(소발 중)이다.

elkim@fn

“한국어 공부한 AI ‘왓슨’ 유통·회계분야 뛰어든다”

“AI가 연말정산 해줄까?...美세무법인, IBM 인공지능 ‘왓슨’ 도입 - 7만4천쪽 세법 공부 끝내고 내주 서비스...세무사 일자리 잠식 우려도”

“분식회계 잡아내는 ‘AI 회계사’ 나온다...
日 2~3년내 실용화”

“AI starts to replace accountants”

“Rise of the AI accountants: Startup’s technology automates all financial processes”

“...according to Accenture, 80% of accounting and finance tasks will be delivered with automation in the next few years.”



7. 4차산업혁명시대의 금융과 회계정보 ⑦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 회계산업의 미래 : 인공지능과 회계정보 (AI & AI)

회사마다
'AI 회계사' 보유

AI는 전문가 도우미, 감사인을 애널리스트로 만든다
감사인 + AI → 경제 및 산업전문가

Bookkeeper - Dead

Auditor - Alive
(경제 및 산업전문가)

Consultant & Tax
advisor - Alive

- 단순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반복적인 회계처리(기장) 업무는 자동화
→ AI Accountant 활용, 회계자문 제공기회 확대
- * 회계사는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회계자문서비스 제공

- 표본감사, 사후감사 → 전수감사, Real Time 감사
- * 감사범위와 능력 확대
- AI는 도구 ↔ 판단분야는 지속적으로 인간의 영역
- * Solu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Tools

- 경영컨설팅이나 높은 수준의 세무자문은 판단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
→ AI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컨설팅 제공



7. 4차산업혁명시대의 금융과 회계정보 ⑧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금융과 회계의 공통점 (투명성과 AI)

	투명성 강화	AI활용
금융	블록체인기술 활용으로 보안 강화, 거래운영비용 절감 ☞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으로 전문가 써포트 확대 ☞ ‘로보어드바이저’ 또는 ‘로보 애널리스트’ 활용
회계 정보	빅데이터 기반의 Data Analytics, 상시 감사(Continuous Audit) 수행, 감사품질 향상 및 감사비용 절감 ☞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AI가 감사인을 애널리스트로 만 든다 ☞ 감사인 + AI → 경제 및 산업전문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감사합니다

